

# 漆谷 深川洞 出土 古式陶質土器에 對한 一考察

朴 光 烈\*

## 目 次

- |                 |             |
|-----------------|-------------|
| I. 序言           | IV. 編年 및 性格 |
| II. 遺蹟의 位置 및 環境 | 1. 相對編年     |
| III. 採集遺物       | 2. 遺物性格     |
|                 | V. 結語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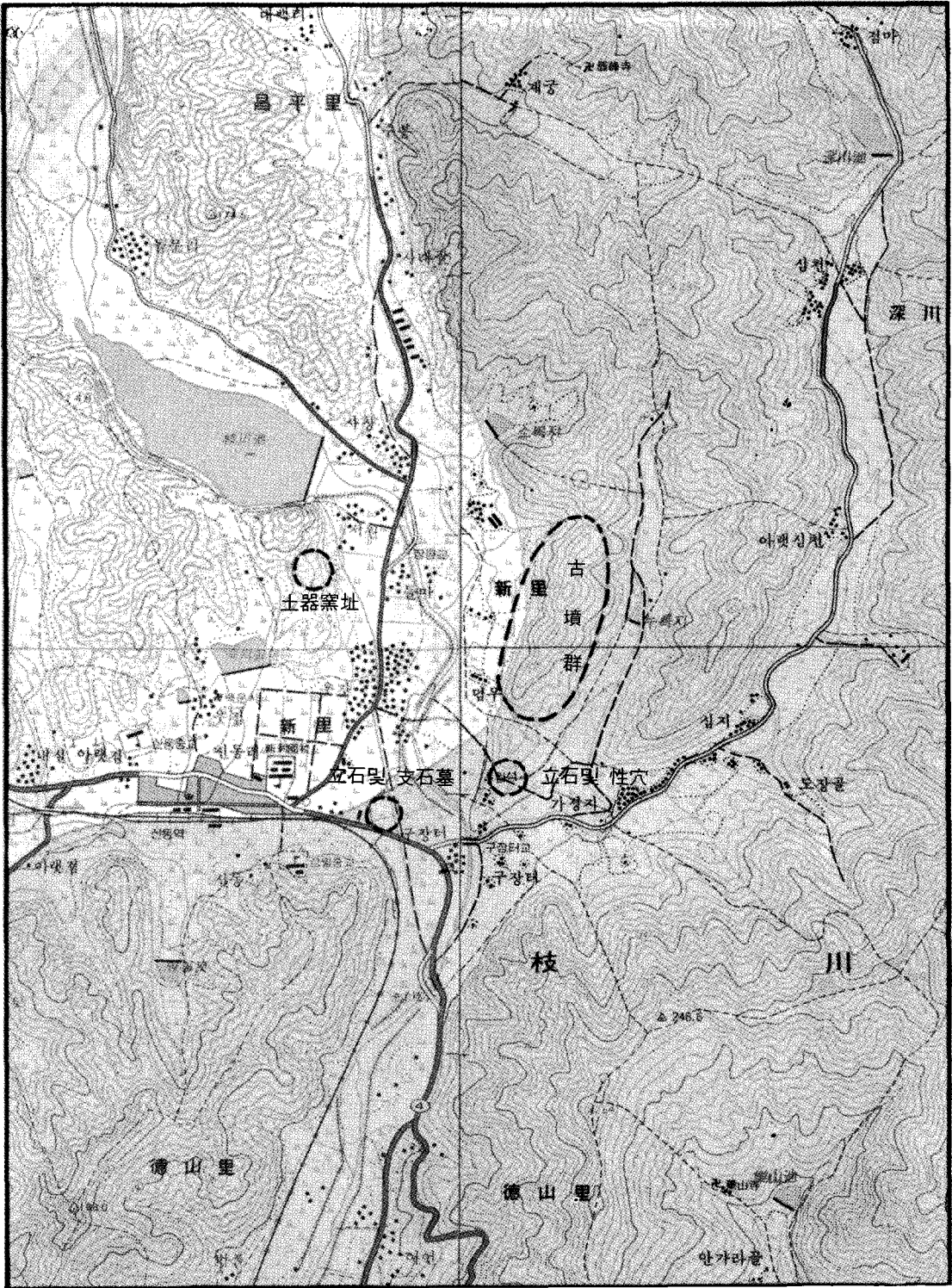
## I. 序 言

古式陶質土器라 함은 3세기말 이나 4세기초에 出現하여 新式陶質土器(신라, 가야토기)가 나타나기 이전에 사용된 陶質土器를 말한다. 현재 嶺南地域에서는 1980년대 부터 古式陶質土器가 출토되는 다수의 유적을 發掘하여 4세기를 중심연대로 하는 古式陶質土器의 實體를 어느정도 규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5세기초에 나타나는 新式陶質土器의 출현과정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러한 發掘 및 연구성과는 주로 金海, 釜山地域과 慶南西部地域, 慶州地域에 한정되다시피 하였기 때문에 古式陶質土器의 성격과악에 地域的인 불균형을 초래하였다.

本考에서는 이러한 地域的 불균형에서 오는 문제점을 약간이라도 해결해보기 위해 漆谷地域에서 출토된 자료를 소개하고, 약간의 고찰을 해 보기로 한다. 그러나 소개하는 자료가 10여년 이상 걸쳐서 地表採集된 遺物이기 때문에 共伴關係 검토가 어렵다. 따라서 유물 個個의 속성을 파악 검토하여 유적전체의 性格을 밝히고, 古式陶質土器가 출토되는 慶南地域 및 慶州地域과 비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

\*慶北大學校 博物館



挿圖 1. 漆谷 深川洞 古墳群 位置圖, 1/25, 000

## II. 遺蹟의 位置 및 環境(삼도1)

本遺蹟은 行政區域上으로 慶尙北道 漆谷郡 枝川面 深川洞이다. 大邱에서 倭館으로 통하는 4번국 도변에 위치하고, 枝川面 所在地에서 400m 가량 떨어져 있으며, 遺蹟은 深川洞 마을 북쪽에 자리 하는 北高南低의 긴 능선상에 있다. 이곳에 破壤古墳이 대략 100여기 이상 유존한다.<sup>1)</sup>

古墳의 分布狀態는 대체로 稜線 頂上과 頂上서쪽사면에 土壙墓 및 甕棺墓, 石棺墓가 있고, 稜線의 南쪽과 南西쪽 斜面에는 小形石槨墓가 분포한다. 地表上에 산재하는 토기편을 볼 때, 前者는 古式陶質土器가 많이 採集되고, 後者는 新羅系土器에 속하는 토기가 채집된다.

遺蹟址는 北高南低의 긴 丘陵으로서 주위환경은 丘陵 左, 右에 小河川이 흐르고 丘陵 南端에서 합류하여 琴湖江의 支流로서 南流하는 伊彥川을 형성한다. 그리고 구릉 좌, 우에는 伊彥川과 그 支流上에 좁은 평야를 형성하며 그 外域은 山地로 싸여 있다. 이러한 지리적 환경은 작은 규모의 취락 집단이 安住하기에 좋은 地形이다.

遺蹟의 이러한 환경 때문에 先史부터 다수의 유적이 주변에 遺存한다. 그 例로 古墳群이 위치하는 구릉의 남단에 巨大한 立石(지방기념물 29호)이 있고, 입석에서 가까운 岩盤表面에 性穴群이 있으며, 구릉남서쪽 350m 지점에 支石墓 및 立石이 있다. 또한 구릉북서쪽 500m 떨어진 枝川저수지의 남쪽 사면에서 土器窯址를 확인한 바 있다.<sup>2)</sup>

## III. 採集遺物

### 1). 高杯類

圖1-② 灰褐色을 띠는 無蓋式高杯이며 臺脚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는 굵은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이며 燒成은 低火度의 瓦質이다. 杯底는 편평하고 杯身은 약간 외반하며 口緣部와 杯身 사이에 둥근기미의 突帶 1조를 돌렸다. 口緣端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器 표면은 灰黃色이나, 속심은 黃褐色이다. 臺脚部는 몇 段인지 알 수 없으나 細長方形透窓 4개를 뚫어 배치하였다.

現器高 8.5cm, 口徑 17.2cm

圖1-③ 暗紫色을 띠는 無蓋式高杯로 臺脚部가 결실었다. 胎土는 정선된 점토이며 燒成은 低火度이나 陶質이다. 杯身은 바닥에서 외반하다가 구연부에서 상하 2조의 돌대가 마련되고 이곳부터 약

1) 尹容鎮, 《慶尙北道 文化財地表調査報告書( I )》, 慶北大學校博物館 1980, P 10 상기책에 보고되기 이전부터 慶北大學校 尹容鎮 教授가 관심을 가지고 확인한 유적으로 그 후 80년부터 91년까지 꾸준히 지표조사하여 많은 양의 陶質土器 및 鐵器類가 경북대학교 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2) 1983년에 경북대학교 박물관 崔兌先과 筆者가 함께 확인한 유적으로 그 당시 5 세기대의 토기편을 다수 채집한 바 있다.

간 외반한다. 口緣端 아래에 흠을 크게 들렸으며 端은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杯身 外面은 박자로 두드린 후 예새각기를 하고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內面은 燒成시 산화되어 黃褐色을 띤다. 속심은 灰青色이다.

現器高 7.1cm, 口徑 17.9cm

圖1-④ 灰褐色을 띤 無蓋式高杯이며 臺脚이 결실되었다. 胎土는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杯身은 편평하며 낮고, 뚜껑받이턱은 沈線을 1조 돌려 형식적으로 마련하였으며, 口緣部는 약간 외반하며 端은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臺脚은 '八'字狀으로 벌어지며 중앙에 4조의 沈線을 돌려 上·下 區分후 2.3×0.8cm의 細長方形 透窓 5개를 상하 각 段에 교차배치하였다. 杯身 外面은 예새각기후 물손질 하였으며, 外面 및 內面 일부에 黃綠色의 自然釉가 유리질화 부착되었으나 일부는 산화 박리되어 黃褐色을 띤다. 속심은 灰褐色이다.

現器高 9cm, 口徑 19cm

圖1-⑤ 灰白色을 띤 高杯이며 臺脚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低火度の 瓦質이다. 杯身은 편평하고 전체적으로 'L'字狀을 이루며, 윗쪽에 등근기미로 처리된 형식적인 突帶 1조를 들렸으며, 口緣端은 외측으로 오목하다. 臺脚은 수직으로 뻗어내리다가 저부에서 급격히 벌어져 나팔상을 이루며 端은 오목하다. 臺脚은 3조의 突帶를 돌려 3등분한 후, 각 段에 長方形透窓을 4개씩 일렬배치하였다. 杯身표면은 예새각기후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속심은 暗褐色이다.

器高 17.9cm, 口徑 16.1cm, 底徑 12.2cm

圖1-⑥ 灰黑色을 띤 高杯이며 臺脚이 결실되었다. 胎土는 사립이 거의 섞이지 않은 정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杯身은 편평하고 중앙에 날카로운 기미의 突帶1조를 들렸으며 뚜껑받이턱은 옆으로 길게 돌출하였다. 口緣部는 內反하며 端은 오목하다. 臺脚과 杯身사이에 突帶1조를 돌리고, 臺脚部에는 細長方形透窓을 뚫었다. 杯身아랫쪽에는 指頭壓痕이 있고, 윗쪽에는 목리조정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器內面과 口緣部는 소성시 산화되어 黃灰色을 띤며 속심은 暗紫色이다. 蓋는 胎土 燒成 色調 모두 高杯와 동일하다. 蓋身은 편평하며 沈線을 윗쪽에 1조 아랫쪽에 1조 돌려 3분하였다. 드림턱은 밖으로 길게 돌출하였으며 드림은 약간 外反한다. 꼭지는 逆梯形에 半圓을 붙인 형상이다. 表面一部와 內面은 黃綠色의 自然釉가 유리질화 부착되었으나 산화박리되어 灰黃色을 띤며, 속심은 暗紫色이다.

高杯 : 現器高 5.7cm, 口徑 15.7cm 蓋 : 器高 5.2cm 復元口徑 16.1cm

圖1-⑦ 灰褐色을 띤 高杯이며 臺脚이 결실되었다. 胎土는 사립이 약간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杯部는 臺脚에서 외반하다 뚜껑받이턱에서 직립하고 뚜껑받이턱은 길게 돌출하며 端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口緣은 내반하며 端은 둥글다. 杯外面은 폭 0.8cm 정도간격으로 예새각기후 물손질정면하였고, 內面일부에 暗紫色의 자연유가 부착 산화되었다. 속심은 暗紫色이

다.

現器高 5.5cm, 口徑 13.1cm

圖1- ⑧ 暗紫色을 띠는 高杯이며 杯部가 결실되었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杯部는 편평하고, 臺脚部는 곧은 '八'字狀으로, 端은 오목하여 內面이 들린 형태이다. 臺脚中央에 8조의 沈線을 돌려 上下 2분한 다음 上段에 3.4×1.6cm 細長方形 透窓 4개, 下段에 2.8×2cm 크기의 梯形透窓 4개를 뚫었다. 예새로 홈을 내어 杯部和 臺脚部를 접합하였으며, 內外面에 지두흔압이 있다.

現器高 10.4cm, 底徑 12.8cm

## 2). 蓋

圖2- ① 灰青色을 띠는 蓋이다. 胎土는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低火度인 陶質이다. 蓋身은 깊고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 드림턱은 둥글게 돌출하였으며 드림은 수직에 가깝다. 身部 윗쪽에 單齒具의 목리로 3회 돌려 沈線효과를 나타내고 1.3cm 아래에 역시 3회 돌려 沈線을 만들었다. 꼭지는 예새로 깎아 만들었으며 중앙에 圓孔 1개를 뚫었다. 內面은 박자로 두드린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속심은 暗青色이다.

器高 7.3cm, 口徑 17.3cm

## 3). 短頸壺類

圖2- ⑤ 灰褐色을 띠는 圓底短頸壺이다. 胴體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는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低火度の 瓦質이다. 口緣部는 나팔상으로 벌어지며 端은 오목하다. 胴體部는 전체적으로 球形을 이루며 最大徑은 중앙에 있다. 胴體部 표면은 예새깎기후 물손질정면하였고, 內面은 박자로 성형한 후 물손질 하였다. 속심의 색조는 暗褐色이다.

器高 13.7cm, 口徑 10.3cm, 胴最大徑 14.6cm

圖2- ⑥ 赤褐色을 띠는 圓底短頸壺이다. 胎土는 사립이 포함되지 않은 고운 점토를 사용하였으며, 燒成은 양호하고 두드리면 쇠소리가 나는 陶質이다. 口緣部는 肩部에서 '〉'字狀으로 외반하며 端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胴體部는 윗쪽에 최대경이 있으며, 저부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器內面은 朱칠을 하였으며 底部表面에 'x'字 표시가 있다. 胴體部는 예새깎기후 물손질 정면하였고, 頸部 內面에는 지두흔압이, 저부에는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 속심은 暗紫色을 띤다.

器高 12.8cm, 口徑 12cm, 胴最大徑 15.2cm

圖3- ① 暗紫色을 띠는 短頸壺이다. 胎土는 사립이 거의 섞이지 않은 미세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口緣部는 '〉'字狀으로 벌어지며 端은 중앙을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胴體部의 표

면은 口緣部까지 타날후 1.5cm간격으로 橫沈線 1조로 구획하였고, 內面은 타날문의 내박자로 두드린 후 물손질하였으며, 口緣部는 지두압흔이 남아 있다. 器內面은 黑褐色을 띠나 산화되었으며, 口緣部는 暗紫色을 띤다.

現器高 10cm, 口徑 15.2cm

圖3-② 暗青色을 띠는 圓底短頸壺이다. 胎土는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양호한 陶質이다. 口緣部는 '〉'字狀으로 벌어지며 端은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胴體部는 전체적으로 球形에 가깝고 최대경은 중앙에 있다. 器內外面은 박자로 성형후 물손질 하였으며, 口緣內面은 폭 0.5cm정도의 예세깎기 실시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속심은 暗青色을 띤다.

器高 23.3cm, 口徑 16cm, 胴最大徑 26.7cm

圖3-③ 暗青色을 띠는 圓底短頸壺이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양호한 陶質이다. 口緣部는 肩部에서 외반하다가 端部에 이르러 직립하고 端은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胴體部는 最大徑이 윗쪽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逆三角形이고 底部는 둥글다. 器內外面은 黃褐色의 자연유가 부착되었으나 산화되어 灰黃色을 띤다. 肩部內面은 예세깎기를 실시하였고, 口緣內面에는 지두압흔이 남아 있다. 속심은 暗紫色을 띤다.

器高 13.7cm, 口徑 13cm, 胴最大徑 17.4cm

圖3-④ 灰白色을 띠는 圓底短頸壺이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약간 섞인 정선된 점토이며 燒成은 低火度の 瓦質이다. 口緣部는 약간 외반하며 중앙에 무딘 突帶 1조를 돌렸고 端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胴體部는 전체적으로 球形이며 最大徑은 중앙에 있다. 器表面은 마연기미의 예세깎기후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內面은 누르기로 성형후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속심은 灰白色이다.

器高 13.3cm, 口徑 12.9cm, 胴最大徑 17.3cm

圖3-⑤ 黑褐色을 띠는 圓底短頸壺이다. 口緣部 및 胴體部 일부가 파손 결실되었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약간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口緣部는 약간 외반하고 윗쪽에 角이 있는 1조의 沈線을 돌렸으며 端은 약간의 홈이 있다. 胴體部는 전체적으로 球形에 가까우며 최대경은 중앙에 있다. 胴體部 表面 아랫쪽에는 예세깎기후 물손질 정면하였고, 內面은 손으로 눌러 頸部나 胴體部를 접합하였으며 아랫쪽에 초승달모양의 내박자흔이 있다. 胴體部 일부와 저부는 燒成시 산화되어 灰褐色을 띠며 속심은 暗紫色을 띤다.

器高 17.2cm, 復元口徑 14.7cm, 復元胴最大徑 21.2cm

圖3-⑥ 灰白色을 띠는 圓底短頸壺이다. 胎土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이며 燒成은 低火度の 瓦質이다. 口緣部는 약간 외반하고 중앙에 둥근기미의 突帶 1조를 돌렸으며 端은 편평하다. 胴體部는 최대경이 중앙에 있는 球形이다. 器表面 肩部에는 지두압흔이 있고, 胴體部 아랫쪽은 예세깎기후 물손질하였다. 내면은 물손질정면하였으나 頸部에 지두압흔과 胴體部 중앙에 타날문의 내박자흔이

남아 있다. 속심은 灰褐色이다.

器高 16.4cm, 口徑 12.4cm, 胴最大徑 18.7cm

圖4-① 暗紫色을 띠는 圓底短頸壺이다. 胎土는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火度가 약한 陶質이다. 口緣部는 약간 외반하며 端은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胴體部는 최대경이 중앙에 있으며 球形이다. 속심은 灰靑色을 띠고 器內外面은 예새깍기 및 내박자로 두드린 후 횡방향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頸部 內面에는 磨研 幾微의 폭 1cm정도 예새깍기를 실시하였다. 內面 胴體部는 제작시 파생된 3-4조의 沈線이 있다.

器高 20.7cm, 口徑 17.8cm, 胴最大徑 23.8cm

圖4-② 黃褐色을 띠는 圓底短頸壺로 底部가 결실되었다. 胎土는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의 陶質이다. 口緣部는 나팔상으로 벌어지며 구연 윗쪽에 등근 幾微의 突帶 1조를 돌렸고, 端은 약간 둥글다. 胴體部는 전체적으로 逆三角狀을 이루며 최대경은 윗쪽에 있다. 口緣部 內面과 肩部에 녹색의 자연유가 유리질화 부착되어 있으나 일부는 산화 박리되어 灰黃色을 띤다. 口緣部 內面에는 제작시 생긴 2조의 沈線이 돌아가고 그 아랫쪽에 지두압흔이 있다. 肩部 표면은 예새깍기후 목리로 정면한 흔적이 있다. 속심은 灰黑色이다.

現器高 15.7cm, 口徑 12.5cm, 胴最大徑 19cm

圖4-③ 黑色을 띠는 圓底短頸壺이다. 口緣部 및 胴體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는 사립이 약간 함유된 정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의 陶質이다. 口緣部는 나팔상으로 벌어지며 한쪽으로 늘린 형태이다. 중앙에 뾰족한 기미의 突帶 1조를 돌렸으며 端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胴體部는 球形에 가까우며 최대경은 윗쪽에 있다. 胴體部 아랫쪽 표면은 지두압흔 및 박자흔이 교차되어 있으며, 윗쪽은 예새깍기후 목리조정하였다. 內面 아랫쪽에는 타날문의 박자로 성형후 물손질정면하였다. 口緣部 內面과 胴體部 윗쪽은 燒成시 산화되어 灰褐色을 띠며 속심은 暗紫色이다.

器高 20.4cm, 口徑 16.1cm, 胴最大徑 21.7cm

圖4-④ 黑褐色을 띠는 圓底短頸壺이다. 胎土는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거친점토를 사용하였으며 燒成은 양호한 陶質이다. 口緣部는 외반하며 端은 둥글게 처리하였으며, 端直下에 날카로운 기미의 突帶 1조를 돌렸다. 胴體部는 최대경이 윗쪽에 있으며 전체적으로 逆三角狀을 이룬다. 底部는 약간 오목하게 들린 형태이다. 器外面에는 타날흔과 예새깍기흔이 있으며, 內面은 내박자로 성형후 물손질하였다. 胴最大徑 이상부분은 황회색으로 산화되었으며 속심은 暗紫色이다.

器高 22.5cm, 口徑 15cm, 胴最大徑 24.9cm

#### 4). 廣口小壺類

圖4-⑤ 黑褐色을 띠는 臺附廣口小壺이다. 胎土는 굵은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양호한 陶質이다. 전체적으로 口緣下端과 胴體部 중앙이 잘록하게 들어갔으며 口緣部는 외반하고 端部는 둥글게 처리하였다. 底部는 臺脚部와 접합후 목리조정한 흔적이 남아 있다. 臺脚은 반이상 결실되었으나 길이 1.4cm, 폭 1cm크기의 長方形透窓이 4개 뚫려 있다. 器外面일부와 內面은 黃綠色의 자연유가 유리질화 부착되었으나 산화 박리되어 황회색을 띤다. 속심은 暗紫色을 띤다.

現器高 8.3cm, 口徑 8.4cm

圖4-⑥ 黑褐色을 띤는 廣口小壺이며 반파되었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약간 섞인 고운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口緣部는 약간 내반하고 端은 둥글다. 身部는 날카로운 기미의 突帶를 2조 돌려 3분하였으며, 저부와외의 사이에 홈을 크게 들렸다. 저부는 편평하며 표면은 마연기미의 예 새끼기후 물손질 정면하였다. 內面은 黑褐色이나 소성시 산화되어 黃褐色을 띤며 표면은 底部와 口緣端만 산화되었다. 속심은 暗紫色이다.

器高 6.2cm, 復元口徑 7.5cm, 復元底徑 3.2cm

### 5). CUP形土器

圖4-⑦ 灰褐色을 띤는 CUP形杯이며 반파되었다. 胎土는 사립이 약간 섞인 점토이며 燒成은 低火度の 陶質이다. 身部 윗쪽에 날카로운 기미의 突帶를 1조 돌려 口緣部를 이루고, 口緣部는 약간 외반하며 端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身部는 약간 둥근 기미가 있으며 저부는 약간 들린 平底이다. 把手는 단면이 둥글고 表面을 예새로 정면하였으며 突帶와 底部사이에 위치한다. 身部 아랫쪽에는 마연기미의 예새끼기후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器表面 및 內面은 燒成시 산화되어 황회색을 띤며 속심은 灰褐色이다.

器高 7.6cm, 復元口徑 7.1cm, 底徑 4.1cm

### 6). 長頸壺

圖5-① 灰褐色을 띤는 長頸壺로 동체부 아랫쪽이 결실되었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약간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低火度の 陶質이다. 口緣部는 전반적으로 직립하며 2조의 突帶를 돌려 3등분한다음, 중앙단에 點이 四角形을 나타내는 9齒具의 목리로 횡방향으로 일정하게 찍어 배치하였다. 胴體部는 편평하다가 아랫쪽으로 갈수록 급격히 내반하는 형태이다. 器표면은 타날문의 박자로 성형후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口緣部 內面에 지두압흔이 있다. 속심은 暗褐色을 띤다.

現器高 16cm, 口徑 10.1cm

### 7). 鉢形器臺類

圖5-③ 灰黑色을 띤는 鉢形器臺片이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약간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口緣部는 외반하고, 중앙에 뾰족한 기미의 突帶1조를 들렸으며, 胴體部 윗쪽에



突帶1조를 돌렸다. 器表面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속심은 黑色이다.

現器高 9cm, 復元口徑 32.5cm

圖5-④ 黑褐色을 띠는 鉢形器臺이며 口緣部 및 胴體部 일부만 남아 있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약간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동체부와 口緣部사이에 3조의 突帶를 돌려 4등분한다음 2,3단에 예새로 斜格子文을 시문하였다. 속심은 暗紫色이다.

### 8). 爐形土器類

圖5-② 灰青色을 띠는 爐形土器로 臺脚 및 胴體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는 굵은 사립이 약간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口緣部는 '〉'字狀을 이루며 端은 오목하게 처리하였고 胴體部는 逆三角狀을 이룬다. 胴體部 표면은 폭 0.8cm정도의 예새깎기후 회전물손질로 정면하였다. 口緣 內面에는 지두압흔이 있으며 그 아랫쪽은 同心圓狀의 내박자로 성형후 물손질 하였다. 속심은 灰褐色이다.

現器高 12cm, 復元口徑 26.1cm, 復元胴最大徑 27.6cm

圖6-① 暗紫色을 띠는 爐形土器로 口緣部 및 동체부 일부만 잔존한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약간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胴體部와 口緣部 사이는 날카로운 突帶 1조를 돌렸으며 口緣部는 나팔상으로 벌어져 크게 외반한다. 口緣端部 아래는 狹窄한 突帶 1조를 돌렸다. 器 內面은 소성시 산화되어 灰青色을 띠며 표면일부는 黃褐色을 띠고, 속심은 暗紫色을 띠다.

現器高 9.2cm, 復元口徑 23.7cm

圖6-② 暗紫色을 띠는 爐形土器로 臺脚 및 胴體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는 굵은 사립이 약간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胴體部는 逆三角狀을 이루고 최대경은 윗쪽에 있다. 口緣部는 크게 외반하여 나팔상을 이루고, 端아랫쪽은 날카로운 突帶 1조를 돌렸으며 端은 狹窄하게 처리하였다. 臺脚部는 크게 외반하여 나팔상을 이루고 중앙에 沈線 2조를 돌렸으며, 그 아래에 三角形透窓을 뚫었다. 底緣아랫쪽에 둥근기미의 突帶 1조를 돌렸다. 胴體部 表面은 예새깎기후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臺脚內面에는 지두압흔이 있다. 杯內面과 臺脚部는 소성시 산화되어 黃褐色을 띠며 속심은 暗褐色을 띠다.

器高 22.7cm, 口徑 27cm, 底徑 18.5cm, 胴最大徑 21.6cm

圖6-③ 黑褐色을 띠는 爐形土器로 臺脚部 및 胴體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胎土는 미세한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점토이며 燒成은 高火度の 陶質이다. 胴體部는 전체적으로 逆三角狀을 이루고 중앙에 날카로운 기미의 突帶 1조를 돌렸다. 口緣部는 나팔상으로 크게 벌어지고 윗쪽에 굵은 突帶 1조를 돌렸고 端은 편평하다. 臺脚部는 약간 외반하다가 底部에서 나팔상으로 벌어지며, 底緣 윗쪽에 날카로운 기미의 突帶 1조를 돌렸으며 端은 오목하게 처리하였다. 중앙에 2조의 沈線을 돌려 3

등분후 중앙에 三角形 透窓 6개를 뚫어 橫으로 일정간격 배치하였다. 器內面과 臺脚部 일부는 黃綠色의 자연유가 유리질화 되었으나 일부 산화 박리되어 黃褐色을 띤다. 속심은 暗褐色을 띤다.

器高 22.7cm, 口徑 26.1cm, 底徑 22cm, 胴最大徑 23.1cm

## IV. 編年 및 性格

### 1. 相對編年

編年에 대한 검토는 현실적으로 發掘調査 資料가 아니라, 地表調査 資料이기 때문에 相對編年을 도출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層位關係 및 共伴關係 검토가 어렵다. 따라서 遺物 개개에 대한 屬性檢討를 통해서 동일한 型式을 나타내는 유물을 묶어 타지역에서 조사된 자료와 비교 검토하여 무리는 따르지만 相對編年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1) 高杯類

高杯는 無蓋式高杯 5점과 有蓋式高杯 2점을 대상으로 하였다.

#### (1) 無蓋式高杯

無蓋式高杯는 瓦質燒成인 것 3점(圖1-①, ②, ⑤), 陶質燒成인 것 2점(圖1-③, ④)이 있다. 瓦質燒成인 것중 圖1-① 高杯는 新村里 II지구 1지점<sup>3)</sup> 채집품과 비슷한 형태이나 新村里 高杯는 도질이고 내부의 만곡도가 약하다. 圖1-②는 鳩岩洞 채집유물<sup>4)</sup>과 유사하나, 口緣端部가 내경하고 杯部와 臺脚部사이에 突帶가 있는 점이 다르다. 圖1-⑤는 慶州 月城路 가-13호 출토품<sup>5)</sup>과 비교할 수 있는데, 杯部와 臺脚部는 유사하나 透窓이 2개 일렬로 배치된 점이 다르고 ⑤高杯보다 후출형식으로 생각된다.

陶質燒成인 것중 圖1-③ 高杯는 현재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는 縣洞 15호 출토품<sup>6)</sup>과 유사하나, 縣洞高杯는 臺脚의 폭이 약간 좁은 것이 차이점이다. 圖1-④는 縣洞 25호 高杯<sup>7)</sup>와 杯部형태만 유사하고, 金海 七山洞 38호 高杯<sup>8)</sup>와는 구연의 외반도와 透窓의 배치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인 형식은 비슷하다. 또한 達城土城 高杯<sup>9)</sup>는 杯身이 약간 깊고 突帶가 발달하여 늦은 형식을 보이고, 鳩岩洞 고분 채집유물<sup>10)</sup>이 동일한 형식이다.

3) 崔鍾圭·安在皓, 〈新村里 墳墓群〉, 《中島》進展報告 IV, 國立中央博物館古蹟調査 報告 제15책, 1983.

4) 尹容鎮, 《大邱의 文化遺蹟》, 大邱直轄市·慶北大學校 博物館, 1990.

5)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 《慶州月城路古墳群》, 1990.

6) 朴東百 外, 《馬山縣洞遺蹟》, 昌原大學校博物館, 1990.

7) 朴東百 外, 註 6) 과 同一.

8) 申敬澈 外, 《金海七山洞古墳群 I》, 慶星大學校博物館, 1989.

9) 尹容鎮, 〈韓國初期鐵器文化에 관한 研究〉, 《韓國史學》第 11 輯, 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0.

10) 尹容鎮, 註 4) 와 同一.

瓦質燒成 高杯類들은 新村里 高杯가 4세기말로 편년하고 있고, 月城路 高杯는 5세기 初葉으로 보이기 때문에, 深川洞의 無蓋式 瓦質燒成 高杯類는 4세기말에서 5세기초로 편년되어질 수 있다. 그리고 縣洞, 七山洞 達城土城의 출토품과 비교해 보았을 때, 圖1-③ 高杯는 4세기말로, 圖1-④는 5세기 初葉으로 편년되어질 수 있다.

(2) 有蓋式高杯

圖1-⑥ 高杯는 清道 古哲洞<sup>11)</sup>, 縣洞 36호<sup>12)</sup>, 苧浦 B 6호<sup>13)</sup>, 鴛鴦<sup>14)</sup>, 月城路 가-13호<sup>15)</sup> 등에서 유사한 高杯가 출토되었다. 이중 古哲洞, 苧浦 B 6호와 는 비슷한 형식을 지니고, 鴛鴦, 月城路 가-13호, 縣洞36호는 늦은 형식이다. 圖1-⑦ 高杯는 古哲洞 高杯와 비교해 보았을 때 동일한 형식을 지닌다. 有蓋式高杯 2점은 타유적의 高杯와 비교 검토해 보았을 때, 동일한 형식의 高杯중 가장 빠른 속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4세기말엽에 편년되어 진다.

2) 蓋

圖2-① 蓋는 1점이 채집되었는데, 비교할 만한 자료로는 大坪里 採集品<sup>16)</sup>, 玉田 49호. 54호<sup>17)</sup>, 七山洞 32호<sup>18)</sup> 등이 있다. 상기 4점은 동일한 형식을 지니며 燒成 및 색조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유물의 공반관계를 검토해 볼때 七山洞 출토품은 短脚高杯, 圓底廣口小壺 등으로 볼 때 선행형식을 보이며, 玉田 49호·54호는 直口短頸壺, 高杯, 爐形土器로 보았을 때 늦은 형식이다. 따라서 이 蓋는 玉田出土品과 비슷한 시기인 4세기 후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短頸壺

短頸壺는 16점이 채집되었다. 이중 형식분류가 가능한 것으로는 器高가 15cm 이하인 것 6점, 15cm 이상인 것이 10점이 있다. 그리고 시간적인 추이를 반영할 수 있는 속성으로는 胴最大徑의 위치, 口緣部の 만곡도, 突帶의 유무 등으로 속성을 비교 검토할 수 있다. 이러한 型式의 속성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I類：口緣部가 ‘>’字狀으로 突帶가 없다. 端이 오목하고 胴體部는 圓形이다.(圖2-③·④·⑤·⑥·⑦·⑧, 圖3-①·②·③)

II類：口緣部가 직립하나 약간 외반하는 기미가 있고 突帶가 없다. 端은 편평하며 胴體部는 圓形이다.(圖3-④·⑤·⑥)

III類：口緣部는 ‘>’字狀이며 突帶를 1조 돌렸다. 端은 둥글게 처리하였고 胴體部는 逆三角狀이

11) 朴普鉉, <清道地方出土 伽倻式高杯의 檢討>, 《歷史教育論集》 7, 1985.

12) 朴東百 外, 註 6) 과 同一.

13) 朴東百·秋淵植, 《陝川 苧浦里 B 地區 古墳群》, 昌原大學博物館, 1988.

14) 禹枝南, <大伽倻古墳의 編年>, 서울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6.

15)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 註 5) 와 同一.

16) 安在皓·宋桂鉉, <古式陶質土器에 對한 약간의 考察>, 《嶺南考古學》 1, 1986.

17) 趙榮濟, 《陝川玉田古墳群 I》, 慶尙大學校博物館, 1988.

18) 申敬澈 外, 註 8) 과 同一.

다. (圖4-①·②·③·③·④)

이상과 같이 분류하였을 때 各類의 속성을 비교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I類

圖2-③·④·⑤ 壺는 古式陶質土器가 출토되는 유적에서는 공통적으로 출토된다.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大坪里<sup>19)</sup>, 玉田 22호·27-A호<sup>20)</sup>, 苧浦 B 13호<sup>21)</sup>, 苧浦 A지구 45호<sup>22)</sup> 등을 들 수 있다. I類는 口緣部에 突帶를 돌리지 않고 소형인 점 등 도질토기가 초현하는 단계부터 출토되는 기종으로, 共伴遺物로 볼 때 4세기 初葉부터 5세기대까지 이어지나 深川洞의 채집자료와 大坪里 유물의 검토에서 볼 때, 일단 4세기말엽의 유물로 볼 수 있다. 圖2-⑥·⑦·⑧, 圖3-①·②·③은 器高가 20cm이상으로 前者의 소형과 공반하여 출토되는 것이 공통적이며, 下限年代는 玉田 70호<sup>23)</sup> 출토유물로 볼 때 5세기 말엽까지도 나타난다.

(2) II類

圖3-④·⑤·⑥ 壺는 器高가 15cm 전후이며 口緣部에 突帶를 돌린 것과 沈線만 돌린 것이 있다. 특징적인 것은 口緣部가 약간 외반하나 직립한 형식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直口에 가까운 短頸壺는 月城路 가-29호<sup>24)</sup>, 七山洞 32호<sup>25)</sup>, 苧浦 B 11호<sup>26)</sup>, 福泉洞 42호<sup>27)</sup> 에서 볼 수 있다. 이類는 통상 爐形土器와 공반관계를 이루며 출토되는데, 爐形土器는 陶質土器 초현부터 종말기의 鉢形土器로 전환되는 시기까지 보이므로 그 年代幅이 크다고 할 수 있다. 時期가 늦을 수록 器高가 20cm 이상이 되고 蓋가 덮이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深川洞 II類는 4세기 말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III類

圖4-①·②·③·④ 호는 器高가 20cm 이상으로 口緣部가 크게 벌어지며 突帶를 1조 돌린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형식과 비교 검토해 볼 수 있는 자료는 鳩岩洞 採集品<sup>28)</sup>, 茶里<sup>29)</sup>, 良洞里<sup>30)</sup>, 福泉洞 42호<sup>31)</sup>, 苧浦 B 11호<sup>32)</sup> 등 嶺南地域 내 古式陶質土器가 출토되는 유적에서 공통적으로 출토된다. 따라서 연대폭은 크다고 할 수 있으나 시기가 늦을수록 口緣部에 突帶 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III類는 속성비교와 채집유물중 다른 器種을 검토해 볼 때 4세기 말엽으로 볼 수 있다.

19) 安在皓·宋桂鉉, 註 16)과 同一.

20) 趙榮濟, 註 17)과 同一.

21) 朴東百·秋淵植, 註 13)과 同一.

22) 鄭永和·梁道榮·金龍星, 《陝川苧浦里古墳群(A地區)》, 嶺南大學校博物館, 1987.

23) 趙榮濟, 註 17)과 同一.

24)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 註 5)와 同一.

25) 申敬澈 外, 註 8)과 同一.

26) 朴東百 秋淵植, 註 13)과 同一.

27) 全玉年, 《東萊福泉洞古墳群第 3 次調查概報》, 釜山大學校博物館, 1990.

28) 尹容鎮, 註 4)와 同一.

29) 洪潛植·李賢珠, 〈彥陽郡 斗西面 茶里遺蹟地表面調查報告〉, 《伽倻通信》18輯, 1988.

30) 禹順姬, 〈金海群 酒村面 良洞里遺蹟地表面調查報告〉, 《伽倻通信》11.12合輯, 1985.

31) 全玉年, 註 27)과 同一.

32) 朴東百·秋淵植, 註 13)과 同一.

앞에서. I·II·III 類의 相對編年에 대해서 검토해 보았다. 결국 발생순서로 볼 때 속성의 변화 추이는 I·II·III 類로 이행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나, I·II 類간에는 시차가 없는 것으로도 생각된다. 深川洞土器는 채집유물이기 때문에 변화의 추이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역시 I·II·III 類로 이행되거나 共伴되기도 할 것이다. 年代는 4세기말엽에서 5세기초엽으로 생각된다.

#### 4) 廣口小壺

廣口小壺類는 바닥이 平底인 것(圖4-⑥)과 臺脚이 달린 것(圖4-⑤)이 있다.

圖4-⑥은 陶質土器 初出段階의 圓底廣口小壺 보다 늦은 형식이며 口頸部가 벌어지고 腰部의 축약이 약한 형식보다는 빠른 속성을 지닌다. ⑥과 비교할만한 자료로는 月城垓子 M層<sup>33)</sup>, 道溪洞 15호<sup>34)</sup>, 月城路 가-6호<sup>35)</sup> 出土品이 있다. 月城路 유물의 비슷한 형태이나 道溪洞 출토품은 口緣端부가 약간 외반하고, 月城路 出土品은 腰部의 축약이 약하고 공반유물중 늦은 형식의 短頸壺와 長頸壺가 출토되므로 후출하는 형식이다. 따라서 ⑥은 현재의 자료로 볼 때 4세기말엽으로 생각된다. 圖4-⑤는 현재 비교 검토할 만한 자료는 없으나, 底部에 臺脚이 달리고 長方形 透窓이 뚫린 점으로 보아 ⑥ 보다는 후출하는 5세기 초엽대로 생각된다.

#### 5) CUP形土器

圖4-⑦杯는 口緣部가 직립하고 器身이 편평하며 把手가 杯에 비해서 큰것이 선행형식으로 생각된다. ⑦杯는 CUP形杯 중에서 定形化된 단계의 형식으로 보이는데 비교 검토할 만한 자료는 新村里 II地點 採集品<sup>36)</sup>, 玉田 27호<sup>37)</sup>, 縣洞 28호<sup>38)</sup>, 月城垓子 M層<sup>39)</sup> 出土品이 있다. 新村里 杯는 口緣部가 저부에서 약간 상부에 위치하고, 玉田 杯는 口緣部가 직립하며, 縣洞 것은 口緣部가 크게 외반한다. 따라서 ⑦의 杯는 玉田 27호, 縣洞 28호보다는 선행형식이며, 新村里 채집품과 평행하는 시기로 생각되므로 4세기 말엽으로 볼 수 있다.

#### 6) 長頸壺

圖5-①長頸壺는 高靈系土器로는 最古式에 속한다 볼 수 있다. 비교 가능한 자료로는 福泉洞 32호<sup>40)</sup>, 청강리 출토품<sup>41)</sup>, 皇南里 109號 3.4槨 出土品<sup>42)</sup>, 池山洞 35호출토품<sup>43)</sup>을 들 수 있다. 이중 청강리 출토품은 深川洞 壺보다 약간 늦은 형식이며, 福泉洞 32호 및 皇南里 109호 3.4槨 출토품은 거의

33) 池賢柄, 〈初期新羅土器에 관한 一考察〉, 檀國大學校 大學院 碩士學位請求論文, 1987.

34) 朴東百·秋淵植, 《昌原道溪洞古墳群 I》, 昌原大學博物館, 1987.

35)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 註 5)와 同一.

36) 崔鍾圭·安在皓, 註 3)과 同一.

37) 趙永濟, 註 17)과 同一.

38) 朴東百 外, 註 6)과 同一.

39) 池賢柄 註 33)과 同一.

40) 全玉年·李尙律·李賢珠, 《東萊福泉洞古墳群 第 2 次調查概報》, 釜山大學校博物館, 1989.

41) 禹枝南, 註 14)와 同一.

42) 齊藤忠, 〈慶州皇南里 109號墳 皇吾里 第14號墳調查報告〉, 《昭和 9 年度古蹟調查報告》第 1 冊, 1937.

43) 金鍾徹, 《高靈池山洞古墳群》, 啓明大學校博物館, 1981.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池山洞 35호분의 長頸壺는 高靈系 長頸壺로 정형화되는 단계로 보인다. 따라서 발생순서 배열로 볼 때 深川洞-청강리-皇南里 109호 3.4곽. 福泉洞 32호-池山洞 35호로 변화된다. 현재 공반관계로 출토되는 유물로 보아도 이 순서는 검증이 가능하다. 109호 3.4곽을 5세기 초엽전반<sup>44)</sup>, 池山洞 35호를 5세기 초엽후반<sup>45)</sup>으로 볼 때, 深川洞 出土品은 4세기 후엽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 7) 鉢形器臺

鉢形器臺는 2점(圖5-③·④)이 채집되었는데 4는 胴體部에 斜格子文을 시문하였는 점이 다르다. 圖5-3은 爐形器臺에서 鉢形器臺로 넘어가는 과도기단계의 것으로 보이며 ④는 口緣部가 외반하고 文樣이 시문된 점을 보아 ③보다 후출하는 형식이다. 이와 비교될 만한 자료는 道溪洞 12호<sup>46)</sup>, 玉田 27호<sup>47)</sup>, 苧浦 B 15호<sup>48)</sup>, 儀松洞 출토품<sup>49)</sup>이다. 이들 중 儀松洞 採集品이 가장 선행형식이고, 道溪洞, 玉田, 苧浦 B 15호 출토품은 모두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들의 연대는 爐形土器의 종말이 5세기 초엽으로 본다면, 鉢形으로 전환되는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爐形土器의 종말기와 비슷한 시기로 생각된다.

#### 8) 爐形土器

爐形土器는 모두 7점이 채집되었다. 이 중 소개된 4점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았다. 채집된 爐形土器중에서 전체적인 기형을 알 수 있는 것 중에서, 추출된 속성을 비교 검토해 보았을 때 2종류로 구분된다.

I類 : 口緣部나 胴體部에 突帶가 없고, 口徑과 胴最大徑이 유사한 類(圖5-②)

II類 : 口緣部가 나팔상으로 크게 外反하고 突帶가 있으며, 臺脚部에 三角形 透窓이 뚫려 있는 類(圖6-①·②·③)

##### (1) I類

圖5-⑥은 출토된 자료중에서 비교할 만한 자료는 華明洞 5호<sup>50)</sup>, 鴨寺里<sup>51)</sup>, 杜谷里 출토품<sup>52)</sup>을 들 수 있다. 속성비교를 해 보면, 口緣端部 처리는 華明洞, 杜谷里, 深川洞 3개가 동일한 속성을 지니고, 口緣部의 만곡도는 華明洞, 杜谷里 것보다 深川洞 것이 약하다. 반면 鴨寺里 출토품은 口緣部의 만곡도가 華明洞, 杜谷里출토품과 동일하나, 口緣端部 처리는 선행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

44) 藤井和夫, 〈慶州古新羅古墳編年試案〉, 《神奈川考古》第6號, 1979.

45) 禹校南, 註 14)와 同一.

46) 朴東百·秋淵植, 註 34)와 同一.

47) 趙永濟, 註 17)과 同一.

48) 朴東百·秋淵植, 註 13)과 同一.

49) 鄭永和, 《慶山地表調查報告》, 嶺南大學校博物館, 1986.

50) 金廷鶴·鄭澄元, 《釜山華明洞古墳群》, 釜山大學校博物館 2冊, 1979.

51) 趙永濟, 〈西部慶南 爐形土器에 대한 一考察〉, 《慶尙史學》第2輯, 1986.

52) 慶星大學校博物館, 《伽倻文化圈遺蹟精密調查報告書》, 1989.

라서 4者的 발생순서는 鴨寺里-華明洞, 杜谷里-深川洞 순으로 된다. 이들의 상대연대를 추론해 보면, 鴨寺里 출토품은 4세기 前葉 이후로 본 견해<sup>53)</sup>가 있고 華明洞 출토품은 4세기 中葉으로 보았으며<sup>54)</sup>, 地表調査 자료로 정식검토는 안되었지만 杜谷里 출토품은 4세기 말엽으로 본 견해가 있다.<sup>56)</sup> 따라서 발생순서로 볼 때 深川洞 출토품은 4세기 中葉 후반에 위치할 것으로 생각된다.

## (2) II類

II類는 모두 4점이 채집되었다. 圖6-①은 비교할 만한 자료로는 苧浦 B 6호, 苧浦 B 지표채집유물(圖67-①·③)<sup>56)</sup>과 유사하다. 苧浦 B 6호 출토품은 口緣部가 확대된 것은 동일하나, 口緣端部 아래 突帶의 위치가 약간 아래쪽에 위치하고, 동체에 突帶를 2조 돌렸다. 圖6-②는 苧浦 B 26호 출토품<sup>57)</sup>과 비교 가능하다. 口緣端部를 오목하게 처리하고 胴體部에 비해 臺脚部 길이가 약간 긴 것이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속성을 지닌 爐形土器로 보아야 할 것이다. 圖6-③은 동일한 속성을 가지는 유물중 선행형식으로 보이는 유물은 三東洞 14호<sup>58)</sup>와 束沙里<sup>59)</sup>, 大坪里<sup>60)</sup>, 退萊里 7호<sup>61)</sup>, 玉田 54호<sup>62)</sup> 출토품이며, 후출형식은 縣洞 9호·14호<sup>63)</sup>, 玉田 17.27호 출토품<sup>64)</sup>으로 생각된다. 즉 三東洞出土品은 口緣部가 크게 외반하고 胴體部는 逆三角狀을 이루며, 突帶가 없는 점으로 보아 빠른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臺脚部의 三角形透窓이 뚫린 점과 전체기형으로 볼 때 동일형식 중에서 선행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玉田 54호, 退萊里 7호, 大坪里, 束沙里 출토품은 深川洞 爐形土器와 동일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共伴遺物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深川洞 채집유물을 중심으로 타지역의 發掘品, 採集品 및 研究成果를 통해서 비교 검토하여 相對編年을 도출해 보았다. 유물의 공반관계를 전혀 알 수 없는 채집품인 관계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비교하지 못하고, 遺物의 個別的인 속성을 파악 他地域과 비교하여 최대한 근사치에 가깝도록 분석하였다. 그 결과 深川洞에서 채집된 유물들은 4세기 中葉 후반부터 5세기 初葉前半에 속하는 古式陶質土器 단계의 유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물 개개의 相對編年은 큰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先後關係나 重複關係에 있어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

53) 趙永濟, 註 51)과 同一.

54) 申敬澈, 《新羅土器發生에 對하여》, 韓日文化交流基金, 1986.

55) 慶星大學校博物館, 註 52)와 同一.

56) 朴東百·秋淵植, 註 13)과 同一.

57) 朴東百·秋淵植, 註 13)과 同一.

58) 安春培, 《昌原三東洞甕棺墓》, 釜山女子大學校博物館, 1984.

59) 趙永濟, 註 51)과 同一.

60) 安在皓·宋桂鉉, 註 16)과 同一.

61) 孫秉憲 外, 《金海退來里遺蹟》, 成均館大學校博物館, 1989.

62) 趙永濟, 註 17)과 同一.

63) 朴東百 外, 註 6)과 同一.

64) 趙永濟, 註 17)과 同一.

## 2. 遺物性格

### 1) 製作技法

#### (1) 胎土 및 燒成

深川洞 출토 古式陶質土器의 胎土는 육안 관찰에 의해 3종류로 나누어진다. 첫째, 胎土 내에 石英, 長石粒이 거의 섞이지 않고 순수 니질점토로 이루어진 것(6점) 둘째, 胎土 내에 미세한 石英, 長石, 이물질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19점) 셋째, 胎土 내에 粘土와 砂粒의 비율이 6:4 정도로 혼입된 거친 점토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7점). 燒成은 모스(Mohs)경도계에 의한 수치를 따르며 모스 경도 3.5를 기준으로 瓦質과 陶質로 구분하는데 3.5는 동전에 의해 토기 표면이 굽히느냐 굽히지 않느냐로 본다.<sup>65)</sup> 이 기준에 따라 瓦質은 7점, 陶質은 29점으로 陶質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다. 토기의 속심은 暗紫色 35%, 黑色 및 灰黑色 30%, 灰青色 20%, 灰白色 10%, 기타 5%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胎土는 순수 니질점토와 점토와 사립의 비율이 6:4정도인 것으로 된 토기는 주로 빠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石英 및 長石이 다수 함유된 토기는 늦은 속성을 지니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빠른 속성을 지닌 토기들의 胎土는 深川洞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토양의 것이다. 燒成度는 빠른 속성을 지닌 토기들이 높거나 크게 낮은 瓦質燒成이며, 늦은 속성의 土器는 경도 3.5 전후의 토기들이다. 器의 속심은 빠른 속성을 지닌 토기가 暗紫色이나 黑色, 灰黑色을 띠며, 灰白色 및 灰青色을 띠는 토기는 전반적으로 늦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 (2) 成形技法

토기의 成形技法을 관찰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壺, 爐形土器 등 용량이 큰 것은 주로 테쌓기 후 내박자로 두드린 다음, 口緣部나 臺脚部를 붙이고 점토보강후, 손으로 누르기를 하거나 예새깎기를 실시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둘째, 小形土器들은 底部에서 뽑아 올린후 底面을 예새깎기를 실시하고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셋째, 高杯는 杯와 臺脚을 따로 만드는데, 杯部를 테쌓기 하여 杯身을 만든 다음 口緣을 붙이면서 턱을 만들어 점토로 보강후, 손으로 누르고 예새깎기 실시하였다. 臺脚과 접합을 위해 예새로 放射狀으로 홈을 내거나 同心圓狀으로 홈을 내어 접합, 점토보강후 누르기하여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成形技法에서 이 지역 출토 古式陶質土器는 이상과 같이 관찰이 되며 5-6세기 代의 土器成形技法과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후일 新式陶質土器의 製作技法은 다음기회에 관찰해 보기로 한다.

### 2) 樣式論

4세기대 古式陶質土器의 樣式論에 대해서는 80년대 이후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져 共通樣式說과

65) 李盛周, <三國時代前期土器의 研究>, 《韓國上古史學報》1冊, 1988.



地域樣式說로 제시 논의되어 왔으나, 현재의 遺物出土 양상으로 볼때 이러한 논의는 무의미하게 생각된다. 다만 현재는 釜山 金海지역의 古式陶質土器와 慶州를 중심으로 하는 嶺南地域의 古式陶質土器로 2대 지역으로 地域色이 나타난다고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sup>66)</sup>

深川洞에서 採集된 토기로 보았을 때, 慶南 西部地域 및 慶南 東部地域의 토기형식과 일치하는 면이 강하고, 釜山 金海 지역에서 출토되는 古式陶質土器와는 기종 및 형식차이가 약간 인정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sup>67)</sup> 그러나 發掘資料의 증가로 金海, 釜山지역에서 한정되는 토기가 慶州에서도 출토되고<sup>68)</sup>, 慶南 西部地域 및 慶南 東部地域, 慶北 일원에서 나타나는 형식의 토기가 釜山 金海지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는 이제 토기의 器種이나 形式分類에 의해 地域樣式이나 共通樣式을 論할 것이 아니라, 각 유적에서 출토되는 古式陶質土器의 胎土問題, 燒成問題, 製作技法問題등을 파악 분석하여 產地推定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연구 분석을 거친후 土器窯址 조사 및 歷史的인 사실 검토, 각 지역간의 토기 및 공반되는 金工品 鐵器類의 交換 및 전파관계, 集團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深川洞 토기는 주변에 土器窯址가 있어서 이 지역의 土器製作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시 주변에서 가장 큰 집단이었던 大邱나 慶州로 부터 교환이나 대여가 아니라 기술이전 혹은 습득하여 現地에서 생산된 古式陶質土器로 생각된다.<sup>69)</sup>

### 3) 古式陶質土器 內에 보이는 소위 「高靈系土器」의 의미

深川洞출토 古式陶質土器중에서 高靈系土器의 선행형식으로 생각되는 高杯 1점(圖1-⑥)과 長壺壺 1점(圖5-①)이 채집되었다. 上記 2점은 前章에서 언급되었지만 4세기말에서 5세기초로 편년 되어질 수 있는 토기이다.

圖1-⑥ 高杯는 蓋와 杯가 set되어 출토된 토기로 高靈系高杯의 선행형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형식을 나타내는 유물이 출토된 유적은 慶州의 月城路 가-6호분, 가-13호분<sup>70)</sup> 들 수 있으나, 이들 고배는 심천동 高杯보다 약간 늦은 형식의 속성을 지닌 高杯가 출토되었다. 親新羅系 지역에서 5세

66) 安在皓, 《東萊福泉洞古墳群Ⅱ》, 〈考察〉, 釜山大學校博物館, 1990.

67) 釜山 金海地域에서 특징적인 즉 한정된 유물이라 생각되는 把手附爐形器臺, 外反口緣短脚高杯 정도로 생각된다.

68) 慶州 月城核子 堆積層에서, 金海 釜山에서 보이는 外反口緣短脚高杯 및 廣口小壺 등이 출토되었으며 “池賢柄, 〈初期新羅土器에 대한 一考察〉, 檀國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1987”에 소개되어 있다. 慶州地域에서 咸安, 高靈, 金海, 釜山 등지를 중심으로 하는 토기가 출토되는 것을 慶州地域의 土器文化가 이들 지역 영향권으로 보려는 견해 “申敬澈, 〈嶺南地方的 4.5世紀代 陶質土器와 甲冑〉, 《韓國大學博物館協會 第33回 學術發表要旨》, 1990”가 있으나 이러한 유물들은 慶州地域에서 土器窯址 조사가 안되어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土器類가 古式陶質土器의 共通樣式的 측면에서 생각할 때 慶州地域에서 출토되는 것은 문제가 안된다. 古式陶質土器의 전통을 이어 받은 汎伽倻圈土器가 5세기 초엽에 경주지역에서 보이는 것은, 경주지역이 伽倻土器文化圈 영향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共通樣式的 古式陶質土器 전통의 잔재가 남은 것으로 생각한다.

69) 古式陶質土器의 發生과 展開는 많은 문제점이 있으나, 일단 大邱地域의 이 시기 토기를 新羅나 伽倻의 영향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어려우나, 類型上으로 볼 때 慶州地域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

70) 國立慶州博物館·慶北大學校博物館, 註 5)와 同一.

기 초엽에 다수의 유적에서 伽倻系樣式을 띠는 高杯가 출토되나 5세기 中葉頃에는 新羅地域에서 사라지고, 大伽倻文化圈에서 定型화된 高靈系 type高杯로 정착되었다. 圖5-①長頸壺는 新羅地域에서 4세기말에서 5세기 中葉까지 나타나다가 高杯와 마찬가지로 사라져 大伽倻地域에서 高靈系 type의 長頸壺로 정착된다.

이러한 type의 高杯, 長頸壺는 古式陶質土器단계인 4세기 후엽에 나타나 성행하다 4세기 말엽이나 5세기 초엽에 新式陶質土器가 성립되어, 新羅土器와 혼재되어 사용되다가 대가야지역에서 정착된 기종이다. 즉 낙동강 서안형의 대표적인 토기인 大伽倻土器는 원래 古式陶質土器에서 전통이 이어져 변화 정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新羅土器(新式)는 4세기말 혹은 5세기초에 慶州를 중심으로 성립되어 親新羅系地域의 古式陶質土器를 불식시키고 慶州系土器文化圈으로 편입시켜, 洛東江의 東岸地域은 빠른 속성을 지닌 慶州系土器가 나타난다. 洛東江 西岸地域은 古式陶質土器의 전통을 이어 받은 大伽倻의 高靈系土器가 성행하여 지속되다가 신라의 정복사업에 의해 복속될 때까지 사용되었다. 따라서 大伽倻 멸망후 大伽倻文化圈에 속하던 지역은 新羅系土器 형식 중 늦은 형식의 토기가 출토된다.

결론적으로 古式陶質土器는 범신라지역에서는 5세기초에 불식되어 新式陶質土器인 慶州系土器로 전환되었으며, 범가야지역에서는 古式陶質土器의 전통을 이어받은<sup>71)</sup> 高靈系土器 즉 大伽倻土器가 정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深川洞, 福泉洞, 安溪里, 月城路 가-6.13호, 皇南里 109호 3.4곽에서 보이는 高靈系 Type土器는 大伽倻地域과 문물교류나 힘에 의한 지배의 소산이 아니라 4세기대의 古式陶質土器전통의 잔재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 V. 結 語

이상에서 漆谷 深川洞 出土 古式陶質土器를 통하여 약간의 性格과 相對編年을 도출해 보았다. 前記에서 언급하였듯이 10년이상 걸쳐 채집된 유물로 相對編年 도출에 있어 기본인 層位에 의한 重複關係 및 共伴關係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더러 오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古式陶質土器의 연구에 대한 심한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미에서 소개하였다. 이러한 전제 아래 古式陶質土器에 대한 製作技法, 型式 속에 내재한 기본적인 屬性을 도출하여 發生順序를 정하고, 他遺蹟에서 출토된 토기와 비교 검토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71) 伽倻土器가 古式陶質土器의 전통을 이어 받아 成立하였다고 본 견해는 “崔鍾圭, 〈中期古墳의 性格에 對한 약간의 考察〉, 《釜大史學》 第7輯, 1983”에 이미 언급된 바가 있다. 또한 伽倻樣式의 토기는 共通樣式의 原三國樣式을 繼承하였으며, 전형적인 新羅樣式은 共通樣式으로부터 ‘成立’되었다. 라고 “崔秉鉉, 〈新羅古墳研究〉, 崇實大學校 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0. 8”에서 論한 바 있다.

첫째, 深川洞採集 古式陶質土器는 토기의 型式學的 檢討를 통해 볼 때, 中心年代가 4세기 中葉 후반에서 5세기 초엽 전반에 편년되어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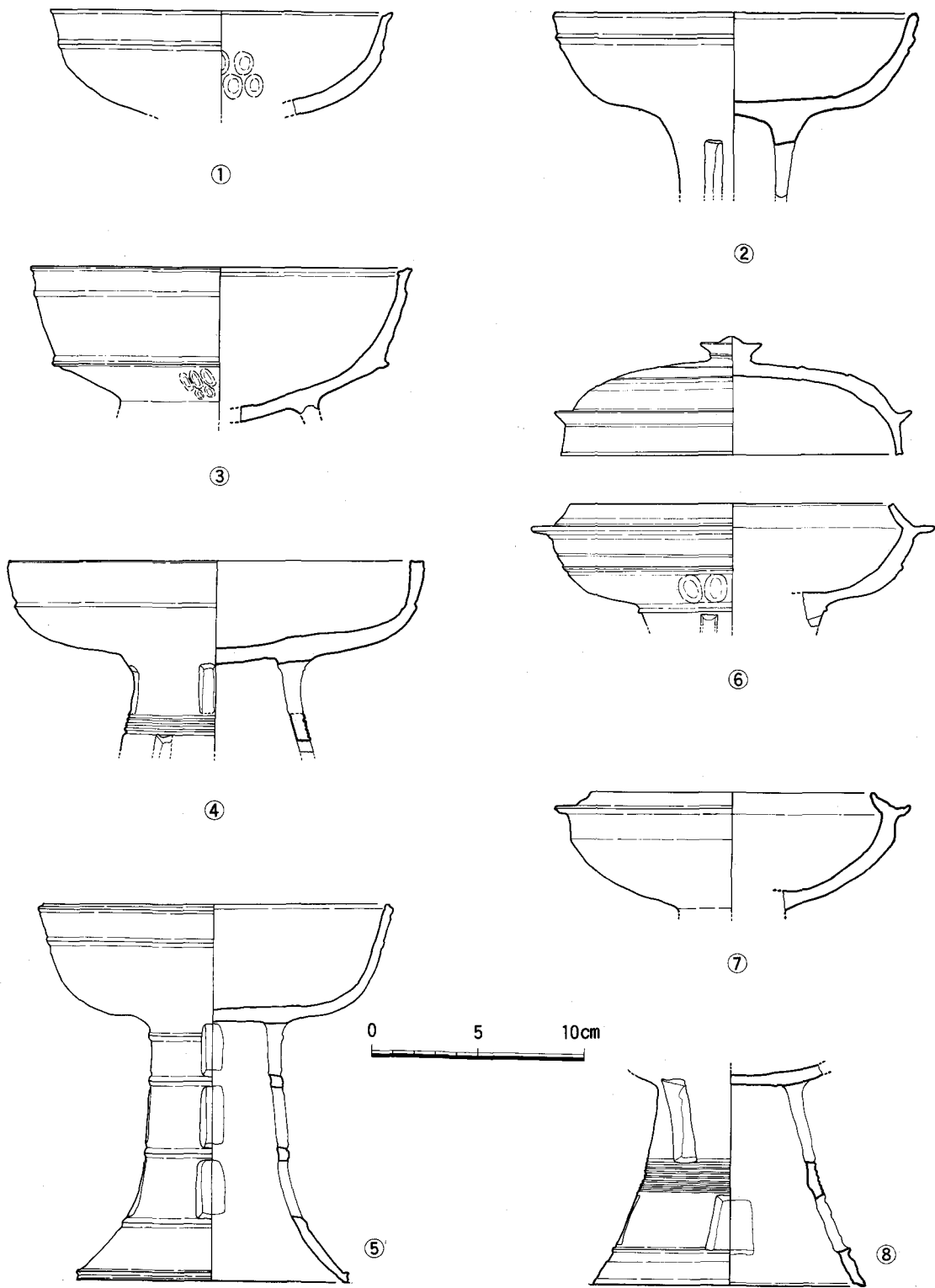
둘째, 製作技法중 色調는 빠른 속성을 지닌 것이 灰色, 暗紫色, 黑褐色을 띠며, 늦은 것은 灰青色, 灰褐色을 띤다. 胎土는 사립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것과 사립이 다량으로 함유된 토기가 빠른 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립이 약간 섞인 토기는 늦은 속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土器를 樣式論적으로 검토를 해 보았을때, 深川洞採集 古式陶質土器는 嶺南地域에서 출토되는 古式陶質土器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다만 金海, 釜山地域과는 1-2개 器種에서 약간의 차이를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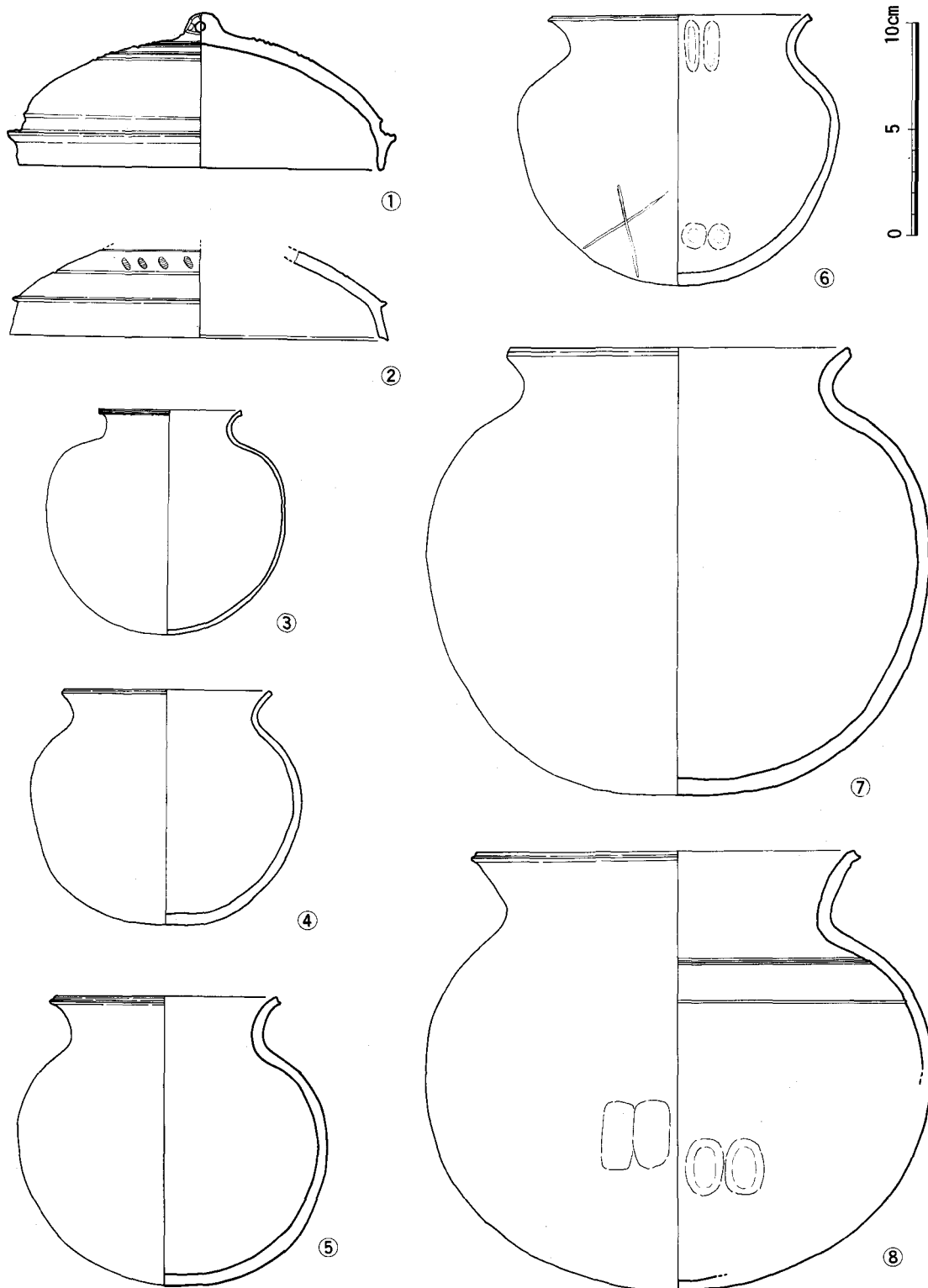
넷째, 古式陶質土器에서 新式陶質土器(신라. 가야토기)로의 전환되는 과정은, 定型化된 新羅土器의 발생은 4세기 말엽이나 5세기 초엽에 慶州를 중심으로 성립되어 주변지역으로 전파되었으며, 定型化된 伽倻土器의 성립은 古式陶質土器의 전통을 이어받아 大伽倻土器가 창출된 것으로 생각한다.

#### < 附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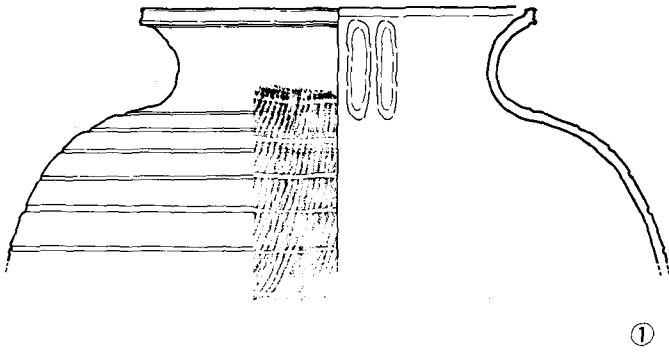
本考를 작성할 수 있도록 遺物소개를 허락해 주시고 많은 가르침을 주신 尹容鎭教授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바쁜 중에도 많은 도움을 준 李相吉, 金瑩和 등 여러 선후배들에게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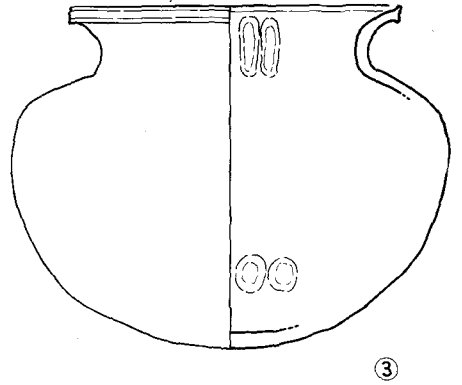
圖面 1. 深川洞 出土遺物 (縮小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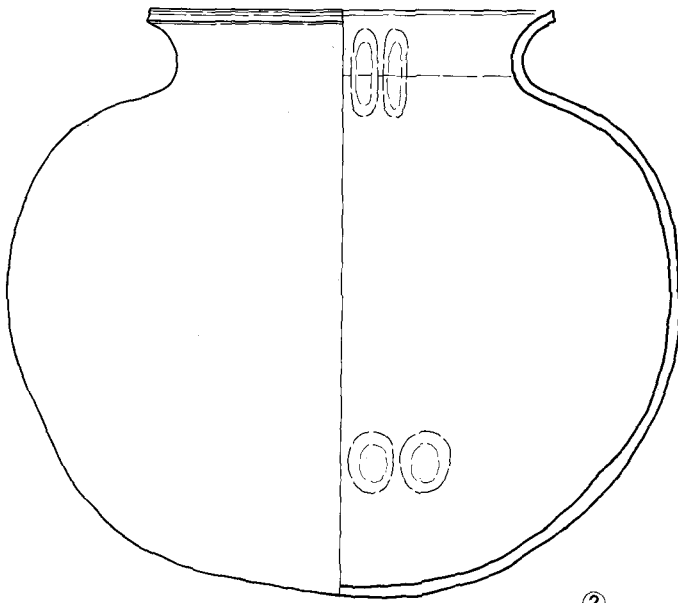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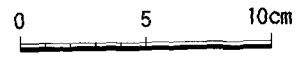
圖面 2. 深川洞 出土遺物 (縮小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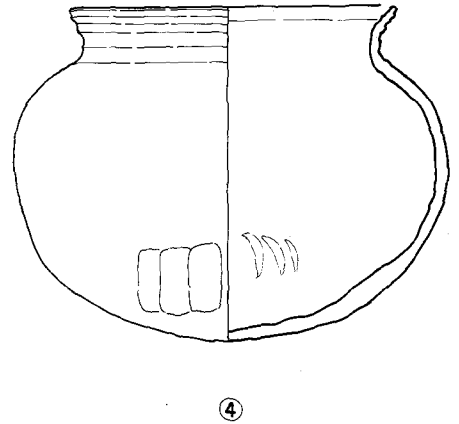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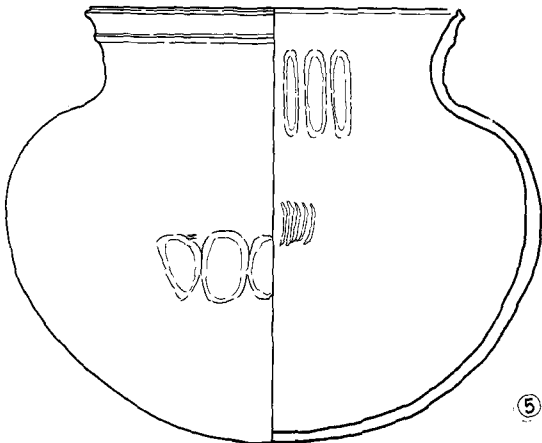
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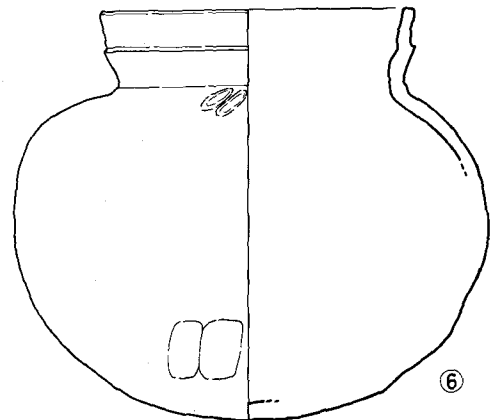
②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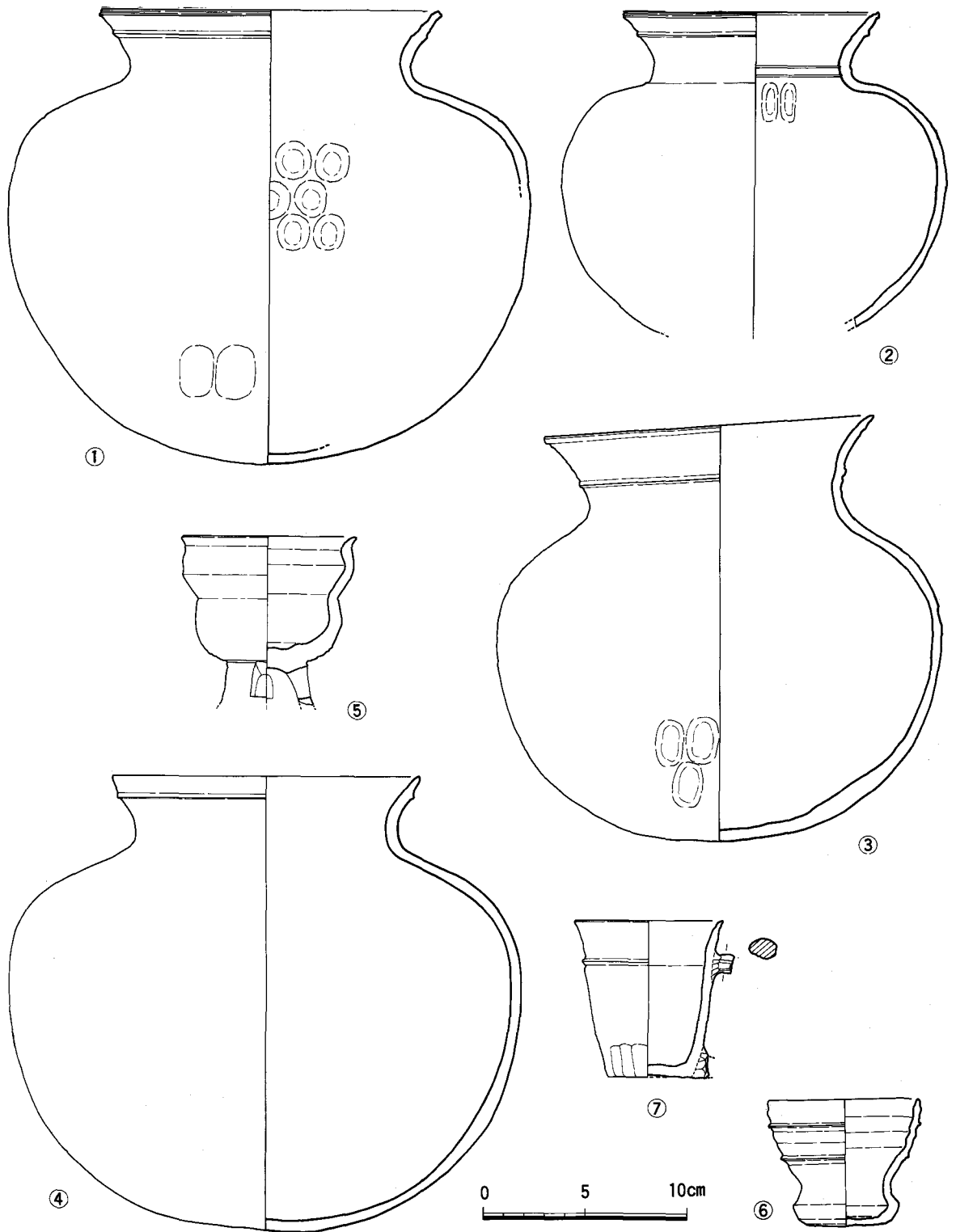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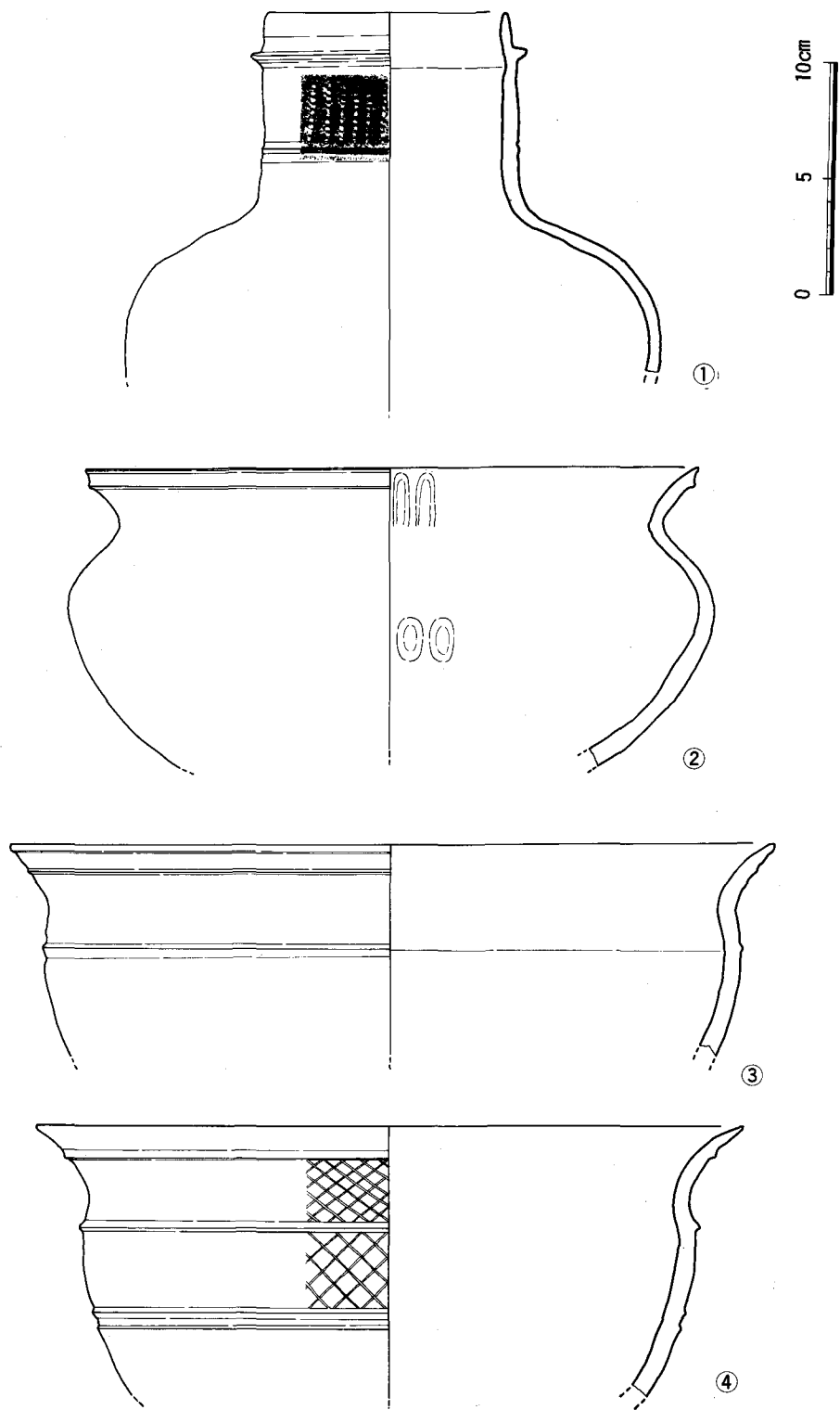


⑥

圖面 3. 深川洞 出土遺物 (縮小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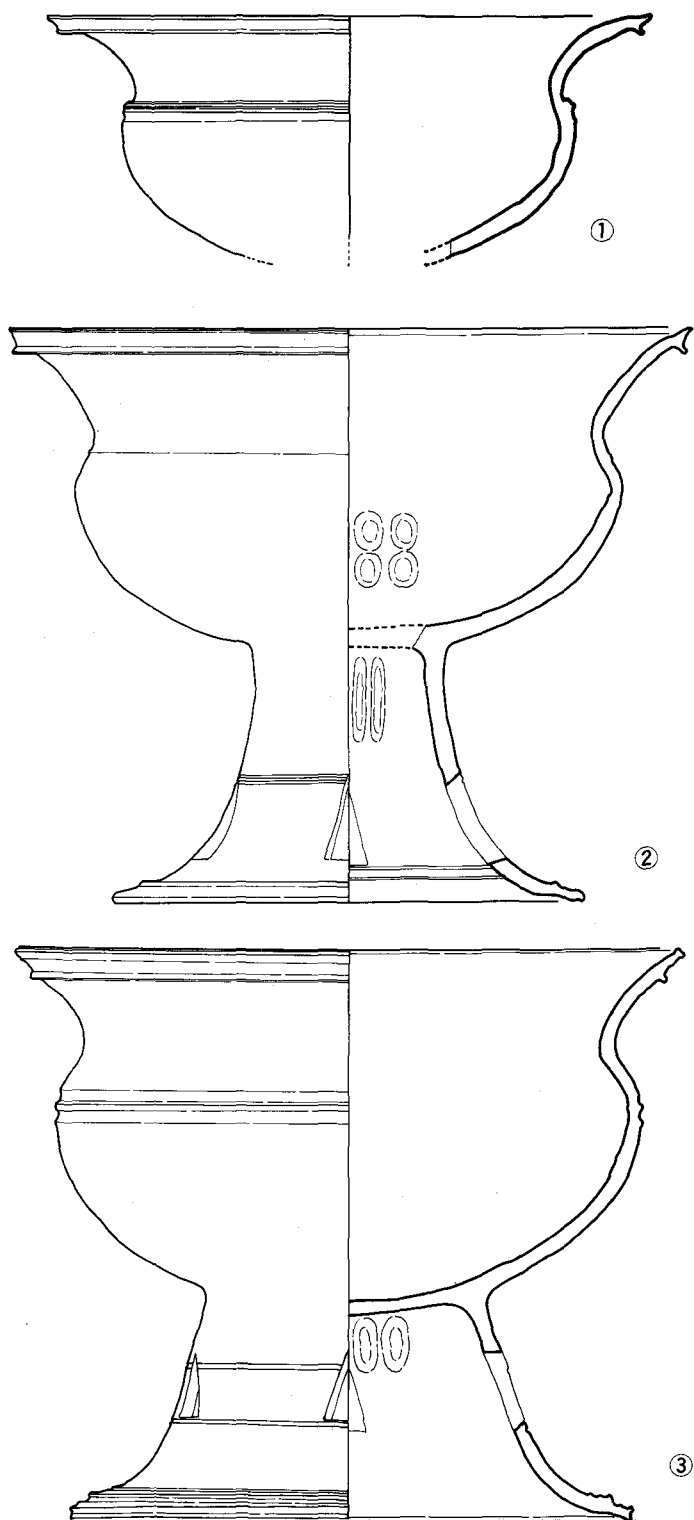


圖面 4. 深川洞 出土遺物 (縮小 1/3)



圖面 5. 深川洞 出土遺物 (縮小 1/3)





圖面 6. 深川洞 出土遺物 (縮小 1/3)